

#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서부지역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노수연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오종혁 전문연구원



#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서부지역

## 요약

- ▶ 중국 서부에 위치한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은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등 국가전략사업의 핵심지역으로 13·5구획 기간(2016~20년)에 중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통한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성장거점 다변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 충칭(重慶)시, 쓰촨(四川)성, 산시(陝西)성은 2015년 서부지역 12개성 GRDP의 44.9%, 투자의 43.7%, 소매 판매의 47.0%, 대외무역의 52.6%, FDI의 64.5%를 차지하고, 한국기업의 진출도 가장 활발
- 세 지역은 신산업 육성과 함께 인터넷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의 전개로 서부지역의 대외개방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서부대개발 2.0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
- 세 지역은 지역간 통합발전보다는 역내 불균형 해소와 성장거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혁신과 창업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세 지역을 창업 거점으로 활용 가능
- ▶ 충칭시는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혁신센터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며, 주력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라 디스플레이, 자동차(전장 분야, 하이브리드)의 고급부품소재 분야 진출이 유망하며, 일대일로 관련 국가간 협력에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망됨.
- 이를 위해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체계 구축 △하이테크 기술 산업화 추진 △혁신창업 생태계 완비 △혁신 자원 집중 △성과 평가 및 보상기제 마련 등을 추진 중이나, 충칭의 경제구조, 산업기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른바 '검소한 혁신(frugal innovation)'을 표방하며 저부가가치, 저비용 중심의 개발도상국형 혁신센터 성격을 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기업은 현지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공급이나 기술지원 등 틈새시장 공략과 대형·친환경 자동차 증산 계획에 따른 전장용 부품 수요 증가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 충칭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행 국제화물철도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 독일,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운수연합기업을 설립하는 등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도 향후 일대일로 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관련 협력을 적극화할 필요
- ▶ 쓰촨성은 도시화와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며, 한국은 청두경제구역 내 도시 외의 협력 확대와 화장품·패션·식재료 등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
-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거점 다변화를 위해 연계성 높은 도시를 묶어 경제구 형태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고, 제조의 스마트화, 노후기술 개조 등을 추진할 필요
- 진출지역으로는 청두경제구, 톈푸신구가 유망하며, 품목으로는 유통·소비 인프라가 우수하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및 진출 확대가 가능함.
- ▶ 산시성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추격·추월식 성장을 목표로 하며, 한국은 전자, 에너지 등 현지 주력산업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산시성은 자원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에너지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 성장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ICT,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업그레이드 및 혁신을 추진
- 전자산업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연구 추진과 과학기술 산업화에 대한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한중FTA를 활용하여 배기가스, 오폐수 처리 등 환경산업에 대한 진출도 확대할 필요



## 차 례

1. 서부지역 경제 개황
2. 서부지역 13·5규획의 주요 내용
  - 가. 12·5규획과의 비교
  - 나. 5대 키워드 분석
3. 지역별 13·5규획의 핵심정책
  - 가. 충청시: 서부 혁신센터 건설
  - 나. 쓰촨성: 도시화·공업화의 적극적인 추진
  - 다. 산시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추격·추월식 성장
4. 평가 및 전망
  - 가. 지역 종합
  - 나. 충청시
  - 다. 쓰촨성
  - 라. 산시성

참고문헌

## 1. 서부지역 경제 개황

- 중국 서부지역은 12개 성·시·자치구<sup>1)</sup>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내 경제적 위상은 높지 않으나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으로 외자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서부지역은 중국 국토 면적의 약 70.5%에 해당하나 인구가 26.9%에 불과하며, 역내 지역별로 부존자원 및 인프라 수준이 달라 경제 격차가 큰 편임.<sup>2)</sup>
  -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이 추진되면서 인프라 투자가 꾸준히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진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교통물류 인프라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중국 내 경제적 위상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국무원에 따르면 2000~12년까지 칭짱(靑藏)철도<sup>3)</sup>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 3조 7,000억 위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sup>4)</sup>
    - 또한 2015년 서부지역 각급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통 인프라 건설에만 6,000억 위안의 투자가 진행됨.<sup>5)</sup>
  - 이에 따라 서부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15년)<sup>6)</sup>동안 꾸준히 높아졌으며, 특히 고정자산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중국 내 비중이 확대되어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 두드러짐.
    - 서부지역 고정자산투자의 전국 대비 비중은 2011년 23.1%에서 2015년 25.6%로 2.5%p 증가했고, FDI는 2011년 20.4%에서 2014년 22.8%로 2.4%p 증가했음.
- 본고에서는 서부지역 중 경제규모, 소비 및 수출입 규모가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충칭(重慶)시, 쓰촨(四川)성, 산시(陝西)성을 중심으로 13·5규획 기간(2016~20년)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함.
  - 기 3개 지역은 2015년 기준 서부지역 GRDP의 44.9%, 투자의 43.7%, 소매판매의 47.0%, 수출입의 52.6%, FDI의 63.9%를 차지함.<sup>7)</sup>
  - 2010년 이후 충칭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등 자동차, IT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쓰촨성은 롯데백화점, 현대자동차(상용차 부문), 휴롬 등 자동차 및 내수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산시성은 삼성전자, 삼성SDI, 심택 등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짐.

1) 서부지역 소재 12개 지역은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貴州)성, 윈난(雲南)성, 산시성, 간쑤(甘肅)성, 칭하이(靑海)성, 닝샤(寧夏)자치구, 신장(新疆)자치구, 내이멍구(內蒙古)자치구, 광시(廣西)자치구, 티벳(西藏)임.

2) CEIC Database(검색일: 2016. 2. 19).

3) 칭하이성 시닝(西寧)과 시짱자치구의 라싸(拉薩)를 연결하는 철도임.

4) 「国务院关于深入实施西部大开发战略情况的报告」(2013. 10. 22), 『中国人大网』.

5) 「西部12省大手笔布局交通建设 今年总投资超6000亿」(2015. 1. 15), 『人民网』.

6) 이하 본문에서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은 12·5규획 기간, 13차 5개년 계획기간은 13·5 규획기간, 「12차 5개년 계획」은 「12·5규획」, 「13차 5개년 계획」은 「13·5규획」으로 약칭함.

7) FDI는 2015년도 지역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2014년 수치를 사용함.

표 1. 중국 서부지역 주요경제지표(2015년)

지역	GRDP (억 위안)	GRDP 증가율 (%, 전년대비)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소비재 소매 판매액 (억 위안)	수출입 (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충칭(重庆)	15,720	11.0	15,480	6,424	590	42.3
쓰촨(四川)	30,103	7.9	25,973	13,877	448	103.6
구이저우(贵州)	10,503	10.7	10,676	3,283	78	20.7
윈난(云南)	13,718	8.7	13,069	5,103	176	27.1
티벳(西藏)	1,026	11.0	1,295	408	6	1.6
산시(陕西)	18,172	8.0	19,826	6,578	296	46.2
간쑤(甘肃)	6,790	- 0.6	8,626	2,908	45	1.0
칭하이(青海)	2,417	8.2	3,144	2,690	19	0.5
닝샤(宁夏)	2,912	8.0	3,530	788	33	0.9
신장(新疆)	9,400	10.7	10,728	2,602	270	4.2
내이몽구(内蒙古)	18,033	7.7	13,529	6,166	139	39.8
광시(广西)	16,803	8.1	15,700	6,348	433	10.0
서부지역 전체	145,596	-	139,981	57,175	2,533	297.9
서부지역의 중국 내 비중 변화(2011년 → 2015년, %)	20.7 → 21.5	-	23.1 → 25.6	17.8 → 18.9	5.0 → 6.5	20.4 → 22.8

주: FDI는 2014년 기준(2015년 지역별 데이터 미발표).

자료: CEIC Database; Kita.net; 陕西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6. 2. 16), 「2015年西部地区主要经济指标比较」; 陕西省统计局(2016. 1. 27), 「2015年1-12月核心指标」; 「2016青海省人民政府2016年《政府工作报告》」(2016. 2. 14), 『人民网』; 四川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6. 2. 5), 「关于四川省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及2016年计划草案的报告」;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1. 29), 「2015年1-12月全国利用外商直接投资情况」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충칭, 쓰촨, 산시는 12·5계획 기간 중국 평균 이상의 높은 성장을 유지했으나, 연도별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충칭을 제외한 쓰촨, 산시는 목표성장률을 하회함.

- 지역별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세 지역 모두 12·5계획 기간 경제성장률이 중국 전체 성장률인 8%보다 높았으나, 같은 기간 연도별로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음.
- 충칭, 쓰촨, 산시의 12·5계획 기간 실제 달성한 성장률은 각각 12.8%, 10.8%, 11.1%를 기록했는데, 그중 충칭의 성장률은 전체 대비 4.8%p 높아 같은 기간 중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세 지역 중 유일하게 목표성장률을 0.3%p 초과달성함.
- 그러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세 지역 모두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쓰촨성은 2011년 15%에서 2015년 7.9%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 세 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소비재 판매, 수출입, FDI의 2011~14년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sup>8)</sup> 충칭은 수출입에서 높은 성장을 보였고, 쓰촨은 세 지역 중 모든 분야에서 성장이 가장 낮았으며, 산시는 FDI와 수출입에서 높은 성장을 보임.
- 충칭은 2011~14년 중 수출입 규모가 연평균 48.8% 증가해 서부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음.
- 쓰촨은 4개 항목 중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7.9%로 가장 높으며, 소비재 판매 증가율이 14.3%로 충칭, 산시와 비슷한 수준임. 단, 2014년 소비재 소매판매액 규모가 1조 2,393억 위안으로 서부지역 최대의 소비시장임.
- 산시는 수출입이 빠르게 증가하고(24.8%), 2013년 삼성전자의 투자를 계기로 FDI 유입도 활발해지는 추세임.

8) 세 지역의 동일 기간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011~14년의 데이터를 활용(자료: CEIC Database).

표 2. 서부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지역	기간 비교		연도별 추이									
	12·5기간 (2011-15년)		13·5기간 (2016-2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목표 성장률	
	목표치	달성치	목표치						목표치	증감여부		
충칭시	12.5	12.8	9.0 내외	16.4	13.6	12.3	10.9	11.0	10.0	10.0 내외	동일	
쓰촨성	12.0	10.8	7.0	15.0	12.6	10.0	8.5	7.9	7.5	7.5	동일	
산시성	12.0	11.1	전국 평균 상회	13.9	12.8	11.0	9.7	8.0	10.0 내외	8.0 내외	감소	
중국 전체	7.0	8	6.5	9.4	7.7	7.6	7.3	6.9	7.0 내외	6.5~7	감소	

주: 1) 달성치는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실제성장률을 근거로 함.

2) 증감여부는 2015년 목표치 대비 2016년의 목표성장률의 변화를 의미함.

자료: 「粤苏进七万亿俱乐部 供给侧改革成各省实现目标重要途径」(2016. 1. 28), 『人民网』(검색일: 2016. 2. 4); CEIC Database(검색일: 2016. 2. 16); 「李克强作政府工作报告:2016经济增长预期目标6.5%-7%」(2016. 3. 5), 『中国网』(검색일: 2016. 3. 7).

## 2. 서부지역 13·5계획의 주요 내용<sup>9)</sup>

### 가. 12·5계획과의 비교

- 충칭, 쓰촨, 산시는 13·5계획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2·5계획 대비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주요 목표를 수치화하지 않거나 지역별 제시지표 항목에 차이를 보임<sup>10)</sup>
  - 충칭과 쓰촨은 13·5 기간 목표 성장률을 12·5 기간 목표치보다 각각 3.5%p, 5.0%p 하향 조정하여 9.0% 및 7.0%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산시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함.
  - 1인당 GRDP는 충칭이 7만 5,000위안, 산시는 1만 달러를 목표로 제시한 반면, 쓰촨은 2010년 대비 2배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언급하지 않음.
  - 12·5계획에서는 세 지역 모두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을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나, 13·5계획에서는 쓰촨과 산시가 도·농 주민 소득 대신 이를 평균화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목표치를 발표함.
  - 세 지역 모두 12·5계획에서 제시한 도시화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3·5 기간에도 연평균 1%p 이상 도시화율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시화 추진 의지를 보여줌.
  - 또한 12·5 기간까지 도시등록실업률을 지표에 포함했으나, 13·5계획에서는 5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고용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임.
  - 충칭은 300만 개, 쓰촨은 400만 개, 산시는 22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함.
  - 한편 쓰촨성은 과학기술 혁신 관련 지표와 함께 인터넷 보급률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고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터넷 보급률 65%,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75%를 목표로 설정함.

9) 3개 지역이 2015년 말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문(이하 13·5 건의문)」과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작성.

10) 세 지역이 공통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곤란.

표 3. 서부지역 125규획과 135규획 주요 경제사회목표의 비교

항목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GRDP 연평균 성장률(%)	12.5	12.8	9.0 내외	12	10.8	7.0	12	11.1	전국 평균 상회
1인당 GRDP(위안)	50,000	-	75,000	36,000	36,836	-	-	(8,000달러)	(1만 달러)
도시화율(%)	60	59.6	65	48	47.7	54	57	53.9	60
5년간 일자리 창출(만 개)	-	-	300	-	-	400	-	-	220

자료: 지역별 「12·5 규획」 및 「13·5 권의문」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 충칭, 쓰촨, 산시의 13·5규획 기간 경제정책 기초는 12·5규획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임.

-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설정한 점은 12·5규획과 큰 차이가 없으나,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여 목표성장률을 한 자릿수로 조정함.
- 13·5규획에서도 산업구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칭(5대 기능구), 쓰촨(청두 중심 경제권), 산시(시안 중심 경제권)의 중점 추진지역을 설정하였음. 또한 서비스업은 전자상거래, 물류, 과학서비스 등 기존 추진 방향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인터넷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조됨.

### ■ 세 지역의 13·5규획에서는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일대일로 전략이 새롭게 추가됨.

- 세 지역은 '중국제조 2025' 시행을 위해 13·5규획의 산업 발전 분야로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에 대한 기술개선을 강조함.
  - 충칭은 주력산업인 단말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와 자동차 분야에서 각종 부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웨어러블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등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를 육성할 계획임. 또한 화학, 장비, 소재 분야의 구조조정과 기업 인수합병을 단행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쓰촨은 차세대 ICT, 항공우주, 대형 전력발전설비, 교통장비 등의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건축재료·화학·경공업 등 기존 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할 계획임.
  - 산시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항공우주, 3D 프린터,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함. 또한 전통 주력산업인 가스, 석탄 등 자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동차, 정밀제어공작기기 등 장비제조 분야 발전을 추진함.
- '인터넷 플러스'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전통산업 간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터넷의 산업 및 사회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 충칭은 통신 인프라를 확대하여 모든 지역에서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고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O2O 등 인터넷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전시키며,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함.
  - 쓰촨은 인터넷과 사회 융합,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며, 특히 차세대 인터넷 시범도시로 지정된 청두에서 사물인터넷 분야를 발전시킬 계획임.
  - 산시는 인터넷과 결합된 신규 사업모델 수립을 통한 산업의 혁신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강조함. 또한 '인터넷+제조'에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sup>11)</sup>을 강조하고, '인터넷+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2013년부터 일대일로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서부지역도 이를 대외개방과 연계해 13·5규획에 적극 반영함.<sup>12)</sup>

11) 대중이 제품의 콘셉트, 제작 등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참여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

## 나. 5대 키워드 분석3)

■ 세 지역 모두 13·5 기간의 5대 정책 키워드 중 혁신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 목표로 충칭은 발전을, 쓰촨과 산시는 성장을 강조함.

- 지역별 「13·5 건의문」에서 5대 키워드에 해당하는 중점업무를 분석한 결과, 혁신을 주제로 한 중점업무가 모든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혁신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입증함.
- 충칭은 중점업무 29건 중 7건, 쓰촨은 29건 중 8건, 산시는 8건 중 3건이 혁신의 범주에서 논의됨.
- 충칭은 중점업무를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로 △발전의 질과 효율 향상 △발전의 균형성 향상 △생태문명의 건설 △개방형 경제체계의 구축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제시하여, '성장'보다는 '발전'에 방점을 둬.
- 쓰촨은 △경제성장의 신동력 육성 △균형적인 발전구도의 형성 △생태문명의 구축 △협력과 공영 △주민생활의 새로운 기대치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강조함.
- 특히 2016년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을 명시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 산시는 구체적인 발전목표 대신 '추격과 추월(追赶超越)'을 강조하여 쓰촨과 유사하게 경제성장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음.

■ [혁신] 세 지역 모두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주력산업 육성과 농업의 현대화, 과학기술혁신을 중점업무로 하는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충칭은 제조업의 첨단화를, 쓰촨은 혁신개혁시험사업 추진을, 산시는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함.

- 충칭은 산업의 집적화와 스마트화를 핵심으로 하면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강조함.
- 산업기반이 조성된 IT, 자동차와 함께 로봇, 스마트 장비, 스마트 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물인터넷, 신소재, 첨단교통장비, 세일가스개발 등 분야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임.
- 이를 위해 2016년에는 대형 자동차 생산프로젝트 및 신에너지자동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차량 전장용 부품생산 비중을 높여 연간 차량 생산 대수를 320만 대로 늘릴 계획임. 디스플레이 정밀가공과 로봇, 스마트 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일가스 개발 및 부대시설 건설을 진행함.
- 쓰촨은 국가급 '전면적인 혁신개혁시험(全面创新改革试验)' 지역<sup>14)</sup>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3대 핵심도시인 청두, 더양(德阳), 뎬양(绵阳)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혁조치를 체계적으로 시도할 계획임.
- 산시는 과학기술혁신 관련 발전 분야를 구체화하고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개혁을 강조함.
- 구체적인 혁신분야로 △석탄가스·천연오일가스의 친환경 채굴 및 이용 △신에너지자동차 △터보프롭(turboprop) 항공기 △스마트제조 △초전도 재료 △환경정비 △의약건강 △식품안전 △반도체 집적회로(IC) △차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제시함.
- 또한 연구기관이 많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공업연구원을 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중국과학원의 분소인 시안광학정밀기계연구

12)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관한 내용은 2장 나절의 '개방' 내용을 참고.

13) 중앙정부의 13·5계획 건의에서 제시되었던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를 키워드로 함.

14) 중국 국무원은 2015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혁신개혁시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관한 전체방안(关于在部分区域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을 공포하고, 징진지 지역과 상하이, 광둥, 안후이, 쓰촨, 우한, 시안, 선양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3년을 기한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소의 혁신모델을 30개 연구소에 확대실시하여 연구소가 주도하는 혁신산업클러스터와 인큐베이션 기지를 조성할 계획임.
- 시안광학정밀기계연구소는 연구기관, 엔젤기금, 인큐베이터, 창업훈련을 통합하여 과학기술혁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였음. 그 결과 2015년 말까지 △48명의 우수인재 유치 △80개의 하이테크업체 인큐베이션 △7억 위안의 민간투자 유치 △12억 위안의 생산액 달성 등의 성과를 올려<sup>15)</sup> 산시성 정부로부터 과학기술혁신의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

표 4. 서부 3개 지역 13·5 건의문(1): 혁신정책

충칭		쓰촨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주요 과제
발전의 질과 효율 향상	투자·소비·수출의 협력발전 산업 신체계 구축 과학기술혁신과 정보화 농업의 현대화 다양한 시장주체의 공동발전 인재육성 강화	경제성장의 신동력 육성	전면적인 혁신개혁시행 추진 농업의 현대화 선진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발전 정보화와 경제, 사회의 융합 현대적인 인프라시스템 구축 새로운 체제의 완비	혁신발전 경제 체제전환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농업·농촌·농민사업

주: 산시성은 중점업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자료: 「中共重庆市委关于制定重庆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3), 『重庆日报』; 「中共陕西省委关于制定陕西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3), 『陕西日报』; 「中共四川省委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3), 『四川日报』.

■ [조화] 공통적으로 역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며, 경제가 발달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성장을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역할을 부여함.

- 충칭은 2020년까지 지역 내 균형발전과 기능 특화를 위해 5대 기능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지역을 발전수준에 따라 도시기능핵심구, 도시기능확장구, 도시발전신구, 동북생태발전구, 동남생태보호구로 구분함.<sup>16)</sup>
- 충칭은 도심과 주변지역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일권양익(一圈兩翼)'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지역별 기능과 역할이 불명확해 과도한 투자유치 경쟁,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발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 자원분배를 추진하기 위해 5대 기능구 계획을 추진함.
- 구역별로 △도시기능핵심구는 금융·국제비즈니스·첨단 상업무역 등 서비스업에 집중 △도시기능확장구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도시발전신구는 시 전체 구역을 유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동북생태발전구는 특색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창장경제벨트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동남생태보호구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관광개발구 및 특화농업시범기지를 건설할 계획임.
- 쓰촨은 청두와 텐푸신구(天府新区)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서부의 금융·물류·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서부경제의 핵심 성장점이 되도록 하는 한편, 환남경제구(川南经济区), 환둥베이경제구(川东北经济区)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산시의 경우,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부지역(关中)은 시안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반혁신을 유도해 선진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 발전시킴. 북부지역(陕北)은 에너지와 비(非)에너지 관련 산업을 병행발전시켜 경제구조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부지역(陕南)은 에코관광·의약·식품·신소재·장비제조업 등을 발전시킬 계획임.

15) 西安光学精密机械研究所(2016. 2. 2), 「西安光机所科技创新机制再次得到陕西省肯定」(검색일: 2016. 2. 25).

16) 오종혁, 최지원(2014),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 충칭시(重庆市)」,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4-03. p. 2.

표 5. 서부 3개 지역 13·5 건의문(2): 조화정책

충칭		쓰촨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주요 과제
발전의 균형성 향상	5대 기능구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중점구역 블록개발 및 건설 도농발전 일체화 기초시설의 상호연계 물질·정신문명의 조화와 군·민 융합	균형적인 발전구도의 형성	역내 지역간 조화 도농간 조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	역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주: 산시성은 중점업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와 동일.

■ [녹색] 생태문명 건설을 목표로 하며 공통적으로 녹색성장의 장려와 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를 강조함.

- 충칭은 신에너지자동차 이용을 권장하고 저탄소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수역(水域)과 산맥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천연림의 상업성 벌채를 전면 금지하며 천연수목을 도시로 옮겨 심지 못하게 함.
- 쓰촨은 녹색청정생산을 지원하고 녹색발전기금을 조성하며, '녹색'을 테마로 하는 공업·농업·서비스업·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또한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와 농촌,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함.
  - 도시에는 생활우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농촌에서는 농약·화학비료·비닐막의 사용을 줄이며 양식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친환경 처리함. 또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배출허가제를 실시.
- 산시는 생태보호경계선·현대농업단지경계선·도시발전 통제선을 확정함. 또한 2016년에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오염처리 및 미세먼지(霧霾) 감소를 위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표 6. 서부 3개 지역 13·5 건의문(3): 녹색정책

충칭		쓰촨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주요 과제
생태문명 건설	녹색 저탄소 순환경계 발전 자원·에너지 절약과 집약적 이용 주민생활의 친환경화 환경정비 강화 생태계 보호·복원, 생태문명제도건설	생태문명 건설	인간과 자연의 공생 주체공농구 건설 녹색 저탄소 순환경계 발전 자원절약·순환·고효율 이용 강화 환경의 질 개선, 창장 상류 보호	생태문명 건설

주: 산시성은 중점업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와 동일.

■ [개방] 공통적으로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면서 일대일로 구상을 활용해 내륙지역의 개방문호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 충칭은 교통의 요충지임을 강조하여 육·해·공 교통허브 건설을 가속화하고 주요 물류허브를 구축할 계획임. 또한 일대일로 구상 중 실크로드경제벨트와 적극 연계하고 중(충칭)-싱가포르의 전략적 상호연계 파이프릿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임.
- 충칭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위신오우(渝新歐) 국제화물철도<sup>17)</sup> 운행을 확대하고, 쿤밍~아세안 간의 범아시아철도(SKRL),

17) 철도의 총연장길이는 1만 1,179Km로 충칭-독일 함부르크까지 운행되며, 2011년부터 정식 운행함.

- Singapore-Kunming Rail Link)와의 연결을 추진하는 등 물류허브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일대일로 범위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위해 경제무역협력구 등 각종 단지 건설에 참여함.
- 교통망을 활용하여 산업가치사슬을 구축하고 본부는 충칭에 소재하면서 중국 전역에 50만 마리 규모의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하는 수입프로젝트를 추진
  - 금융·항공·교통물류·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싱가포르의 전략적 상호연계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16년 중·싱가포르 상호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싱가포르 공항과의 협력을 심화할 계획임.
  - 쓰촨은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무역협력과 금융 및 인문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영역에서 북미·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FTA를 활용하여 한국·일본·호주와의 산업협력을 심화하고자 함.
    - 경제, 교통, 인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개방협력을 추진하고, 국제화물철도인 롱오우(隆欧) 노선의 운행능력을 개선함.
    -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해 33건의 중점업무를 선정해 시행하고, '251' 3개년 액션플랜<sup>18)</sup>을 추진하며, '1,000개 기업의 실크로드행' <sup>19)</sup> 행사를 조직. 또한 로컬 기업이 해외의 철도·수도·전기·항구 등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성정부 산하에 국유해외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쟁력이 있거나 생산과잉인 산업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임.
  - 산시는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포괄한 개방을 추진하고자 함.
    - 일대일로 구상에 맞춰 서쪽으로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산시를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새로운 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실크로드 에너지금융센터를 건설하고, 전자정보·장비제조·비철금속야금 등 영역의 협력을 추진
    -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산시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중국·중앙아시아 경제협력단지와 산시·한국 산업협력단지, 중·러시아 실크로드 하이테크산업단지 등을 건설할 계획임.
    - 대외협력 플랫폼이었던 동·서부협력 및 투자무역상담회(中国东西部合作与投资贸易洽谈会)의 규모를 확대하고, 실크로드 국제 예술제의 영향력을 키우며 유라시아 경제포럼 형식을 변화시킬 계획임.
    - 아울러 2016년에는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임.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인 진도관리(follow-up)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시성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등 투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표 7. 서부 3개 지역 135 건의문(4): 개방정책

충칭		쓰촨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주요 과제
개방형 경제체제의 구축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전략 참여 개방기능의 개선 개방형 경제발전의 추진	협력과 공영	전방위적인 개방협력 개방형 경제수준 향상 개방협력을 위한 플랫폼 건설 대외개방의 체제·기제 혁신	전 방위적인 대외개방

주: 산시성은 중점업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와 동일.

■ [공유] 취업·창업 촉진, 소득격차 축소, 교육, 사회보장제도, 건강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충칭과 쓰촨은 빈민층과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개선을 특징으로 하고, 산시는 교육사업 발전에 방점을 둬.

18) '251' 3개년 액션플랜이란 일대일로 노선 상에 있는 국가 중 △쓰촨성이 산업 및 무역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20개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를 중점적으로 개척하고 △이들 20개 중점국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상호투자할 50건의 주요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추진하며 △쓰촨성 소재 1만개의 무역회사 중 100곳을 선정하여 일대일로 관련 국가 중 무역 및 투자 기반이 우수한 기업과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함.  
19) 매년 1천 개 기업을 조직해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일대일로'와 관계되는 주요 지역을 방문해 무역투자 촉진활동을 전개하려는 행사임.

- 충칭은 2018년까지 중국 현행기준에 입각해 농촌 빈민구제 임무를 완수할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고산지대 빈민의 이주·의료구제·교육사업강화·최저생활보장 등 사업을 수행함.
- 쓰촨은 빈민층을 5개 단계로 구분해 대상별로 적합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소수민족지역 교육발전 10개년 액션플랜과 '9+3' 무료교육계획을 실시
  - 특히 2016년에는 소수민족지역 15년 무료교육을 전면 실시할 계획임을 밝혀 13·5규획 기간의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 산시는 2020년까지 5개의 대학과 50개의 학과를 전국 일류로 양성할 계획이며, 취학 전 3년 교육을 보급하고 13년(취학 전 과정 1년 + 초등과정 6년 + 중등과정 6년) 무료교육을 전면 실시
  - 현재 중국은 9년 의무교육(초등 6년 + 중등 3년)을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고 대부분 지역은 12년 무료교육을 계획 중임. 산시는 이보다 한 단계 발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함께 산시성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우수성 유지를 도모함.
  - 또한 2016년에는 450개의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고 「제2차 취학 전 교육 3개년 액션플랜」을 완수할 계획임.

표 8. 서부 3개 지역 13·5 건의문(5): 공유정책

충칭		쓰촨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도농주민의 행복한 생활	빈곤구제, 교육사업 취업·창업 촉진 중저소득층 소득증대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주민건강, 인구관리	주민생활의 새로운 기대치에 부합	공공서비스 공급확대 빈곤구제, 교육사업 취업·창업 촉진 소득격차 축소 사회보장제도 완비 주민건강, 인구균형발전	생활수준과 질의 향상	취업장려 농민소득증대, 교육사업 사회보장제도, 주택난 개선 주민건강, 양로서비스 발전 문화발전

자료: 표 4와 동일.

### 3. 지역별 13·5규획의 핵심정책

#### 가. 충칭시: 서부 혁신센터 건설

- 충칭은 대규모 ICT 제조기지 유치를 통해서 단기간에 제조업 성장을 이루었으나 대외환경 변화와 뉴노멀 시대 성장둔화에 대비해 자체적인 혁신능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부 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함.
  - 2009년부터 HP, 에이스, 에이수스(ASUS), 도시바 등 주요 노트북PC 업체가 동부 연해지역에서 대거 이전해 오면서 충칭의 제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장베이(江北) 공항의 운항 노선 확대, 독일 함부르크까지 운행되는 위신오우(渝新欧) 국제화물철도의 정기운행 개시로 대외 물류루트가 크게 확대되면서 대외무역 규모도 대폭 증가함.
  - 충칭은 2015년 노트북PC를 위시한 각종 스마트 기기 생산액이 5,000억 위안을 상회하였으며, 교역규모는 590억 달러에 달해 서부지역 최대 규모를 달성함.<sup>20)</sup>
  - 그러나 해외 수출중심의 ICT 제조업은 2013년 이후 글로벌 스마트기기 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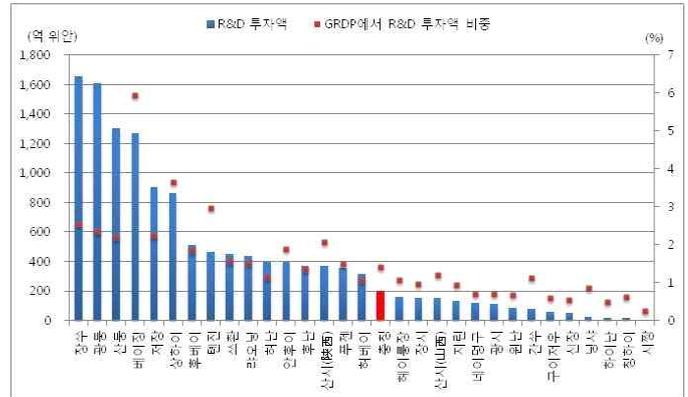
하는 등 대외환경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음. 또한 노트북 PC 단순제조 중심의 ICT 산업구조를 다원화하고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해 차세대 ICT 분야의 발전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짐.

그림 1. 충칭시 2010~15년 대외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그림 2. 중국 지역별 R&D 투자액 및 GRDP 대비 비중 비교(2014년)



자료: 国家统计局(2015. 11. 23), 「2014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 13·5 기간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혁신이 강조되면서 혁신 추진방안으로 서부 혁신센터 건설 의견이 제기됨.

o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혁신(创新)’이 61회 언급되어 가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로 주목받았음.<sup>21)</sup>

■ 그러나 충칭시는 아직 전반적인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R&D 투자, 고급인력, 정책결정자의 이해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2014년 충칭시의 R&D 투자액은 202억 위안으로 GRDP의 1.42%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2.05%)보다도 0.63%p 낮은 수준임.<sup>22)</sup>

o 베이징(1,268억 위안), 상하이(862억 위안) 등 대도시와 격차가 큰 편이며, 서부지역의 쓰촨(449억 위안), 산시(366억 위안)보다도 낮은 수준임(그림 2 참고).

- 관리자급이나 R&D·법률·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등 혁신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급인력도 5만 3,000명에 불과해 베이징(24만 2,000명), 상하이(16만 6,000명), 쓰촨(10만 9,000명), 텐진(10만 명) 등 주요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은 편임.<sup>23)</sup>

- 또한 충칭은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실수요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고 혁신 지원 메커니즘이 불완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sup>24)</sup>

■ 이에 충칭시는 2030년까지 서부 혁신센터 조성을 추진하며, 13·5규획 기간에는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체계 구축 △

20) 충칭시 13.5 건의문; kita.net 등.

21) 「为了西部创新中心的崛起 ——重庆市政协全会现场办理“1号提案”」(2016. 1. 29), 『中国政协网』.

22) 国家统计局(2015. 11. 23), 「2014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23) 「聚集重庆政府“一号提案”: 着力打造西部创新中心」(2015. 1. 26), 『人民网』.

24) 「聚集重庆政府“一号提案”: 着力打造西部创新中心」(2015. 1. 26), 『人民网』.

하이테크기술의 산업화 △혁신·창업 생태계 완비 △혁신자원의 집중 △성과 평가 및 보상기제 마련 등을 시행함.

- 충칭시가 추진하는 서부 혁신센터 건설은 2020년까지 혁신자원을 집중하고, 2025년까지 서부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2030년까지 베이징의 중관춘(中关村)처럼 지명도를 갖춘 혁신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함.
- 충칭시는 종전에 R&D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기술성도가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체계 구축과 하이테크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함.
  - 충칭시는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기술연구센터 공동설립을 장려하고, 기술개발과 관련한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sup>25)</sup> 이러한 장려책을 활용하여 2011년 이후 에이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이 사물인터넷, 근거리 무선통신(NFC) 분야 연구소를 충칭에 설립함.<sup>26)</sup>
- 또한 창업기업의 보육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 창업교육·컨설팅, 벤처투자 및 회수,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임.
-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혁신자원을 량장신구(两江新区)에 집중시키고 산업단지 특성에 맞추어 창업기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R&D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 등 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기제를 마련함.
- 충칭은 특히, 상표권에 관한 지재권 보호 규정이 있으나 저작권 및 기타 법안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서부지역 대부분이 유사<sup>27)</sup>

표 9. 충칭시 「2020년 서부 혁신센터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

항목	세부 내용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체계 구축	지역 우위산업 및 전략적 신산업 분야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기업의 R&D 투자 장려, 연구소 및 기술 서비스 기구의 법인화,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혁신센터 건설 등
하이테크 기술 산업화 추진	산학연 혁신 메커니즘 확립, 산업기술 창업연맹 구축,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완비	대중창업공간 확대, 창업교육·컨설팅, 벤처투자 및 회수, 인큐베이팅 서비스 개선 등
혁신 자원 집중	량장신구(两江新区)를 혁신 중심지로 조성, 하이테크산업단지(高新区) 및 경제기술산업단지(经开区) 등 단지 특성별 창업기지 활성화 등
성과 평가 및 보상기제 마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R&D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 지재권 담보 융자 체계 개선 등

자료: 충칭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

■ 또한 혁신기반을 조성하여 혁신과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지원기금 조성 △선도기업 육성 △전문 컨설턴트 육성 △대중(大衆)창업공간 확대를 추진함.

-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드(seed)머니와 엔젤투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과학기술형 기업 1만 개, 과학기술 분야의 '작은 거인' 기업(科技小巨人) 1천 개를 육성할 예정임.
- 또한 기술 혁신과 창업투자 등을 위한 전문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산업단지를 200개로 확대할 계획임.

25) 오종혁, 박현정(2014),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庆)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4-01, p. 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 오종혁, 박현정(2014),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庆)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7) 姚慧琴 외(2015), 『中国西部发展报告(2015)』, p. 326, 社会文献出版社.

표 10. 충칭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목표	주요 내용
창업지원기금 조성	각 10억 위안 규모의 창업 시드(seed)머니, 엔젤투자, 벤처투자 등 3대 장려기금 조성
선도기업 육성	과학기술형 기업 10,000개, 과학기술 분야의 작은 거인(科技小巨人)기업 1,000개 육성
전문 컨설턴트 육성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창업투자, 과학기술 창업 컨설턴트 각 100명 육성
창업공간 확대	전국적으로 유명한 창업 공간 10개 조성, 과학기술산업단지(科技园区) 200개(국가급 3~5개, 시급 8~10개 포함)로 확대

자료: 『2020年重庆力争初步建成西部创新中心』(2016. 1. 26), 『腾讯·大渝网』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나. 쓰촨성: 도시화 · 공업화의 적극적인 추진

■ 쓰촨성은 경제규모가 서부 최대이나 역내 발전 격차,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 낮은 도시화율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내부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두 외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공업화의 필요성이 높아짐.<sup>28)</sup>

- 쓰촨성에는 19개의 지급(地級)시가 있으나, 성 정부 소재지인 청두(成都)에 주요 산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
  - 청두는 2014년 쓰촨성 GRDP의 35%, 소비시장의 36%, 대외무역의 79%, FDI의 90%를 차지했으며, 2015년에도 쓰촨성 GRDP의 35.9%가 청두에서 창출됨.
  - ICT, 장비제조, 천연가스 · 화학, 자동차 등 쓰촨성의 주요 산업클러스터가 모두 청두를 중심으로 형성됨(그림 4 참고).
  - 청두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쓰촨성 도시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텐푸신구(天府新区) 및 기타 도시의 육성 필요성 확대
- 쓰촨성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약 300개가 진출해 있으나 대부분 단순 제조 공정 중심이라 부가가치가 높지 않음.
- 또한 경제규모에 비해 도시화율과 소득수준이 중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2014년 쓰촨성의 도시화율은 46.3%로 중국 평균(54.8%)보다 8.5%p 낮아 중국 31개 지역 중 구이저우, 윈난, 간쑤 등에 이어 7번째로 낮은 도시화율을 기록
  -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75% 수준,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은 각각 중국 평균 84%, 89.7% 수준에 그치며, 빈곤층이 380만 명에 달함.<sup>29)</sup>

■ 쓰촨성은 12·5규획 기간 중 지역 내 성장거점 다변화를 위해 국가급으로 비준된 텐푸신구와 쓰촨 동부지역을 발전시키고, 낙후지역에 대한 민생사업을 확대함.

- 텐푸신구는 청두시 일대와 메이산(眉山), 쑹양시를 포함하는 지역(1,578km<sup>2</sup>)으로 2014년 국가급 신구로 비준되었으며, ICT · 자동차 · 바이오 등의 산업 발전을 집중 추진<sup>30)</sup>
- 텐푸신구 일대의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그동안 높은 산맥에 둘러싸여 접근이 어려웠던 쓰촨지역 특유의 교통난(蜀道难)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며,<sup>31)</sup> 청두 도심지역의 산업 발전공간 제약 문제 해소에도 기여

28) 쓰촨성 정부는 13·5 건의문에서 지역 발전 상황을 ‘발전부족, 불균형(欠发达, 不平衡)’으로 평가한 바 있음.

29) 『2016年四川省人民政府工作报告』.

30) 『建设天府新区 再造“产业成都”』(2014. 11. 13), 四川省人民政府.

31) 『新常态下天府新区打造“主极核” 成都新起点上发力新作为』(2015. 3. 10), 『四川日报』.



- 판시(攀西) 국가급 전략자원 혁신개발 실험구는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한 바다늄, 티타늄 등 에너지 자원의 종합개발과 청정 에너지 개발이 추진되고, 찬시베이경제구는 쓰촨성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만큼 주로 생태환경분야와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이 추진됨.

표 11. 쓰촨성 주요 경제구 현황 및 발전방향

	대상지역	발전방향
청두경제구	청두, 더양(德阳), 뎬양(绵阳), 수이닝(遂宁), 러산(乐山), 야안(雅安), 메이산(眉山), 즈양(资阳)	- 혁신 발전, 개방 확대, 서부 금융, 물류, 비즈니스 중심 건설 - 산업, 자본, 인력이 집중된 내륙 개방 문호 - 서부 경제 핵심 성장지
톈푸신구	톈푸신구	- 개혁 시범구, 살기좋은 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 도농 일체화 발전 시범구
촨난(川南)경제구	내이장(内江), 즈공(自贡), 이빈(宜宾), 루저우(泸州)	- 쓰촨-산시-구이저우-충칭으로 연결되는 종합 교통 허브 - 기계제조, 화학, 식품가공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촨둥베이경제구	난충(南充), 다저우(达州), 광안(广安), 광위안(广元), 빠중(巴中)	- 천연가스, 농산품 등 자원 우위 산업 발전 - 국가 천연가스 혁신 개발 이용시범구 건설 - 쓰촨·충칭·산시·간쑤 지역과 결합된 지역 경제 중심지 건설
판시 국가급 전략자원 혁신개발 실험구	판즈화(攀枝花), 량산(凉山)	- 자원 종합 개발 촉진, 청정에너지 산업, 아열대 기후에 특화된 농업, 생태관광 등 발전 - 전국 희토류 연구개발제조센터 건설
촨시베이생태경제구	간쯔(甘孜), 아바(阿坝)	- 생태경제 발전, 수력발전, 광산 등 자원의 과학적 활용 - 국가 생태 문명 선형 시범구 건설

자료: 쓰촨성 13·5 건의문 정리.

## 다. 산시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추격·추월식 성장

- 산시성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2000년 이후 서부대개발 사업과 공업생산의 증가로 고속 성장을 지속했으나, 최근 경제성장 둔화 및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이 부각

- 산시성은 중국에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잠재적 가치가 전국의 1/3에 해당함.<sup>34)</sup>
- 산시성은 2000~14년 중 연평균 12.7%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2015년 에너지관련 산업이 전체 공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16%p 하락<sup>35)</sup> 하는 등 에너지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변화가 필요함.
-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15년 3월 산시성 시찰 기간 중 산시성 현 단계의 경제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추격과 추월(追赶超越)'을 강조하면서 산시성 13·5계획의 방향설정에 반영됨.

- 산시성은 ICT,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12·5계획 기간 경제가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도시화도 빠

34) 陕西省地情网(<http://www.sxsdq.cn/sqgk/zhjs>).

35) 「2015년1-12월规模以上工业」(2016. 1. 27), 陕西省统计局 등을 이용하여 각 연도 공업 부가가치액을 계산.

르게 진행되었으나 아직 경제발전 수준은 중국 평균 정도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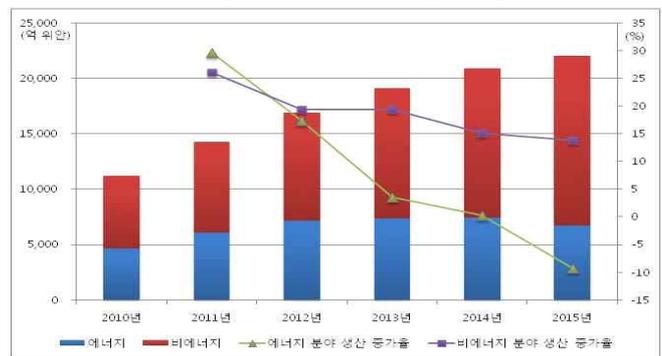
- 산시성은 삼성전자, 삼성 SDI,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신산업 분야가 12·5 기간 빠르게 성장함.
- 주력산업도 에너지자원 중심에서 신산업 중심의 비(非)에너지산업 비중 확대가 이뤄지면서 2015년 경제성장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자원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o 2015년 산시성은 에너지 분야 산업 총 생산액은 전년대비 9.2% 감소했으나, 전자, 의료, 소재 등 비에너지 분야 산업 총 생산액이 전년대비 13.8% 증가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임.
- o 반면 자원·석유화학 등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산시보다 높은 지린, 헤이룽장 등은 2013년 이후 급격한 성장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률도 급감함.

표 12. 산시성 12·5규획 기간 신산업 분야 진출 주요기업

기업명	분야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SDI	배터리
마이크론(Micron)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Applied Materials)	반도체
BlackLight UAS	무인 항공기
ZTE	스마트폰
BYD	전기자동차

자료: EIU(2011, 2013, 2015).

그림 5. 산시성 12·5규획 기간 공업총생산 추이



자료: 산시성 통계국(<http://www.shaanxitj.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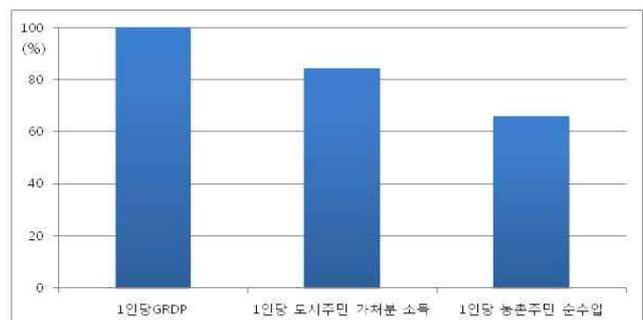
- 그 결과 중국 전체 도시화율이 2011년 51.3%에서 2014년 53.7%로 4년 동안 2.4%p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산시는 47.3%에서 52.6%로 5.3%p 상승해 중국 전체보다 2.9%p 높은 상승률을 기록, 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는 성과를 보임.
- 그러나 역내 불균형과 낮은 소득수준은 13·5규획 기간에도 여전히 미결과제로 남아있음.
- o 시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关中) 지역 도시화율이 높고, 자원산업이 발달한 산시성 북부(陕北) 지역도 빠르게 도시화가 추진되었으며, 산지로 이뤄진 산시성 남부(陕南) 지역은 도시화율이 9.2%p 상승했으나 산시성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음.
- o 또한 12·5규획 기간 11.0%대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야 처음으로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에 도달하였으며, 아직 도시,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은 각각 전국 평균의 80%대, 60%대에 불과함.

표 13. 산시성 12·5 기간 도시화 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49.7	51.3	52.6	53.7	54.7	
산시성	45.7	47.3	50.0	51.3	52.6	53.9
관중	49.6	51.2	53.5	54.6	55.6	-
산시북부	47.8	48.9	51.7	53.3	54.6	-
산시남부	33.6	35.4	38.9	40.9	42.8	-

자료: 『新常态下陕西人口发展呈现四大特点』(2015. 5. 5), 陕西统计局.

그림 6. 전국대비 산시성 1인당 주요 지표 수준(2014년)



자료: CEIC Database.

- 산시성은 경제발전을 13·5규획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경쟁력 업그레이드,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추격·추월식 성장을 실현할 계획임.
  - 신산업으로 차세대 IT, 입체(3D) 프린팅, 신소재, 바이오기술, 환경보호기술 분야를 적극 육성할 계획임.
    - 차세대 IT 분야에서는 집적회로(IC)의 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로 연결되는 산업가치사슬을 완성하고 네트워크통신, 사물인터넷,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등 영역의 칩 설계 수준을 높임으로써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산업기지 조성을 목표로 함. 또한 LED 조명, 평판 디스플레이, 레이저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2020년까지 차세대 IT 산업의 생산액을 4,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예정임.
    - 입체 프린팅 분야에서는 소재, 디지털 디자인, 핵심부품 등을 발전시키고 웨이난 하이테크단지과 시안 하이테크단지에 국가기급 입체 프린팅 시범기지를 조성할 계획임.
    - 신소재 분야에서는 첨단장비, 항공우주, 원자력, 궤도교통, 자동차 등의 영역에서 경량합금을 위주로 한 첨단금속소재를 발전시키고, 초전도체와 세라믹 소재 등의 산업가치사슬을 완성하며, 2020년까지 관련 산업의 생산액을 1,600억 위안으로 확대할 예정임.
    - 바이오기술 분야에서는 존슨앤존슨이 시안하이테크단지에 조성 중인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단일클론 항체(MAb), 폴리펩티드, 표적지향성 약물전달시스템(targeting drug delivery system) 등의 주요 핵심기술을 발전시키고, 2020년까지 관련 산업의 생산액을 1,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임.
    - 환경보호기술 분야에서는 오염예방·처리, 생태계 보호·복원, 환경모니터링 등의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수질 및 대기오염 예방과 고체 폐기물 처리, 환경모니터링기기, 에너지절약 및 청정생산장비 등을 발전시켜 2020년까지 관련 산업의 생산액을 6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임.
  -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13·5 규획기간에는 전통적인 주력산업인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 과잉 생산 억제, 광구(矿区) 관리 체계 개선 등을 단행해 생산성 극대화를 추진함.
    - 석탄의 경우 북부(陕北) 및 빈장(彬长) 광산 개발과 더불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웨이베이(渭北) 등 노후 광구나 소규모 광산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임.
    - 북부지역의 석유·가스개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옌안(延安)지역 셰일가스개발, 석탄정밀가공 등을 추진함.
  - 공업 분야에서 150개 분야의 기술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좀비기업을 퇴출시킴.<sup>36)</sup>
  - 또한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시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지적권 보호 강화와 더불어 활용도를 높이고자 과학기술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함.
    - 2016년에는 정부가 특별기금(专项资金)을 통해 혁신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재정 보조를 실시하고, 특허담보대출, 주식거래 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36) 「陕西将实施150个技改项目 坚决淘汰“僵尸企业”」(2016. 1. 24), 『人民网』.

## 4. 평가 및 전망

### 가. 지역 종합

- 충칭, 쓰촨, 산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등 13·5 계획 기간 국가전략사업의 핵심지역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크며, 경제구조 개선에 따른 속도 둔화는 있겠으나 13·5계획 기간에도 중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 충칭은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전략의 교차지이며, 쓰촨은 창장경제벨트, 산시는 일대일로 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세 지역은 12·5 기간 공업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3·5 기간에도 서부대개발,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발전전략과 함께 신산업 육성, 기술 개선, 혁신 등 산업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전국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세 지역 모두 12·5 기간 ICT, 자동차 등의 제조 분야에서 경쟁했다면, 13·5 기간에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산업혁신전략과 연계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일대일로 사업은 그간 추진되어 온 국가급 지역발전전략인 서부대개발 사업 추진에 호기로 작용하여 서부대개발의 2.0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
  - 서부대개발은 200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동부 연해지역의 과잉 발전능력을 이용해 서부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국방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이 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함.
  - 일대일로 사업은 서부지역의 대외개방을 촉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도, 도로를 통해 화물을 유럽으로 보낼 수 있고 일대일로와 연계된 국가간 교류 및 협력 확대는 시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음.<sup>37)</sup>
  - 칭화대학 브릭스(BRICs) 국가 경제 싱크탱크의 마싱커(冯兴科) 부사무총장은 서부지역의 시스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일대일로를 통해 새로운 개방형 경제시스템이 추진되면서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함.<sup>38)</sup>
- 세 지역은 13·5 기간 지역간 통합발전보다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중복투자 방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 12·5 기간에는 충칭-청두를 발전축으로 하는 청위(成渝)경제구,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등 지역간 통합발전 계획이 추진되었음.
  - 그러나 13·5 기간에는 지역 내 발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면서 경제가 발전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발전시키면서, 기타 지역에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을 부여하여 성장거점의 다각화를 도모함.
  - 충칭은 도시기능핵심구와 량장신구가 있는 도시기능확장구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며, 도시발전신구, 위둥베이생태합양발전구,

37) 「彰显后发优势 “一带一路”促进西部大开发」(2014. 12. 31), 『中国工业报』.

38) 「冯兴科：“一带一路”是西部大开发升级版」(2015. 6. 25), CRI 国际在线.

- 위동난생태보호발전구 등은 아직 낙후지역이나 개별적으로 농수산물, 소수민족 특색 관광지역 등으로 육성할 예정임.
- 쓰촨성은 청두와 텐푸신구를 축으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더양, 멘양, 수이닝, 러산 등을 묶어 청두경제구 발전을 추진하며, 그밖에 환난경제구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환둥베이, 판시 국가급 전략자원 혁신개발 실험구는 자원우위를 살려 발전을 추진
- 산시성은 시안이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도시’ 전략을 통해 서북부에서 최대 인구규모(1,200만 명)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추진 중임.
- 세 지역이 13·5규획 기간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 유사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지역 내 위상 또한 유사하여 교통망 확대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향후 역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특히 충칭과 쓰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중 IT, 자동차와 같이 중복되는 분야가 존재함. 따라서 두 지역이 어떻게 협업하면서 차별성을 유지할 것인지가 지역 차원에서는 관건이 될 것임.

■ 세 지역 모두 혁신과 창업 장려에 적극적이므로 이들 지역을 창업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거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 정책이 완비되어 있고 대중 창업 공간(众创空间) 등 인프라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음.
- 세 지역의 창업환경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기술 인큐베이팅 센터, 대중창업공간 등에 있어 우수한 편으로 평가됨.<sup>39)</sup> 특히 자금 확보면에서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2015년 리커창 총리가 방한 중 제안한 쓰촨성 청두 한중 혁신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진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양국간 혁신 인재들에게 창업공간 제공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창업 교육 프로그램, 기업 멘토링, 투자기관(엔젤투자자)과의 매칭 등이 동반되어야 함.

## 나. 충칭시

■ 충칭의 13·5규획 기간의 정책방향은 혁신능력 향상을 통한 서부지역 최고의 혁신센터를 조성하여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며, R&D 인프라와 경제구조 등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형 혁신센터의 성격을 띠 전망임.

- 충칭시는 세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인 9%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어 13·5규획 기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줌.
- 그러나 고정자산투자, FDI, 제조기지 조성을 통한 수출 확대 등 12·5 기간의 고성장을 견인했던 요인이 13·5 기간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임.
- 따라서 13·5 기간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적 성장동력으로서 혁신능력을 강조하여 량창신구 및 국가급 산업단지 혁신 역량을 집중시키고 첨단제조 가치사슬을 확대하며, 인터넷·헬스·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력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전망이다.
- 충칭이 궁극적으로 2030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혁신센터는 충칭의 경제구조,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39) 충칭과 청두는 2014년 중국 혁신창업도시 순위에서 각 10, 9위를 차지했으며, 직할시를 제외할 경우 청두, 시안은 각각 5, 7위를 차지함. 오중혁, 김홍원(2015), 「중국 주요지역의 ICT 창업환경 분석」, p. 5,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2015), 『2014中国城市创新环境评价研究报告』, p. 2.

때 순수 과학기술 연구개발 능력보다는 이른바 '검소한 혁신(frugal innovation)'<sup>40)</sup>이 주를 이루면서 저부가가치, 저비용 중심의 개발도상국형 혁신센터의 성격을 띠 가능성 높음.<sup>41)</sup>

- 충칭은 다른 직할시나 서부지역 소재 성(省)에 비해 전반적인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sup>42)</sup> 주로 외국 IT 기업의 OEM 제조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자체적인 R&D 능력을 단시일 내에 구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낮추어 보다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형 혁신활동이 주를 이루는 혁신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출 가능성이 있음.

■ 충칭시의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에 따라 디스플레이, 자동차(전장 분야,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 있어 고급 부품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충칭시에는 BOE가 2013년 산화물(Oxide) TFT 기술을 적용한 8.5세대(2,200mm×2,500mm)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공급이나 기술 지원 등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
- 충칭시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320만 대에 달할 예정인데 이는 한국 총 판매량의 1.7배에 해당함. 또한 13·5 기간 대형 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생산라인이 가동되어 전장용 부품생산 비중을 높일 예정임.
- 세계 자동차 전장시장은 2010~19년까지 연평균 7.4% 성장이 예상되며,<sup>43)</sup> 충칭시는 2011년 수립된 「충칭시 IT산업 3년 진흥 계획(2012~2015)」에서 자동차 전장분야 클러스터 육성 지원의지를 밝힘.<sup>44)</sup>
- 그 밖에도 우수한 교통망을 활용하고자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수입전략에서도 변화가 있으므로 한국산 농축산물의 중국 내륙 유통거점으로서 충칭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충칭시 정부는 13·5계획 기간에 일대일로와 연계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향후 양자간 혹은 다자간 정부협력에 적극 참여해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칭시는 싱가포르와 금융·항공·교통물류·ICT 분야에서 65억 달러 규모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sup>45)</sup>
- 싱가포르는 충칭시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약 23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14년 투자액은 55억 달러임.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의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충칭시가 싱가포르-중국의 금융서비스·항공·교통물류·ICT 프로젝트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싱가포르는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위해 충칭과 함께 항공물류 및 경제구역 건설을 추진<sup>46)</sup>
- 충칭시는 2012년에도 유럽행 국제화물철도 운행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 독일,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운수연합기업을 설

40) 케임브리지대 나비 라드주(Navi Radjou) 교수가 주장하는 신개념 혁신으로서, 단순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는 혁신을 의미함. 불필요한 성능을 최대한 줄여 구매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로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을 타깃으로 실행되고 샤오미의 나인봇, 타타모터스의 나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박천웅 이스트스프링 대표 “와해성 혁신 선도하는 기업에 투자”」(2015. 12. 16), 『아주경제』).

41) 국민대 은중학 교수 전화 인터뷰(2016. 3. 7) 내용.

42) 충칭시의 혁신역량 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장 가절을 참고.

43) 「[이슈분석]글로벌 격전지된 전장...국내 자동차·전자 생태계 급속도로 재편」(2016. 2. 28), 전자신문.

44) 오종혁, 박현정(2014),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p. 47, 연구자료 1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 重庆与新加坡新签约65.6亿美元 四大重点领域合作(2016. 1. 9.), 网易.

46) EIU(2015), *China Access Chongqing*, p. 3. (December)

립한 바 있음.<sup>47)</sup>

- 한국도 2011년 충칭과 량장신구 한국산업원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 일대일로 개발 참여를 위해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충칭시가 강점이 있는 자동차·IT·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 기업이 이미 충칭시에 진출했으며, 신규기업의 진출도 단기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진출 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과 충칭시 정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아울러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해 충칭시를 서부지역의 소비, 물류, 또는 R&D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기회요인 발굴이 필요하다.

## 다. 쓰촨성

- 쓰촨성은 13·5규획 기간에 도시화와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 쓰촨성은 서부지역 최대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내 발전격차가 심각하고 도시화율이 중국 평균보다 낮음.
  - 이에 13·5규획 기간에는 청두에 의존하던 기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성장거점을 다각화하기 위해 성 전역을 기능에 따라 5대 경제구로 나누어 이들 구역을 중심으로 도시화와 공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 쓰촨성은 13·5 기간 5대 경제구 별로 댜양(绵阳), 루저우(泸州), 난충(南充) 등 GRDP 1,500억~2,000억 위안 규모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며, △ICT △장비제조 △에너지전력 △석유화학 △철강 △식품 △중약재의 7대 공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sup>48)</sup>
  - 공업의 주요 발전방향은 제조의 스마트화이며, 그밖에 노후기술 개조, 산업단지 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이 있음.
  - 쓰촨성은 2015년 발표한 '인터넷 플러스 쓰촨제조'에 따라 30여 개의 스마트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공정 개선이 이뤄질 예정<sup>49)</sup>
  - 2016년에는 총 70억 위안 규모의 12개 첨단 제조프로젝트가 착공되었으며, 11개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 또한 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산학연 혁신 플랫폼 추진 등을 통한 공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sup>50)</sup>
- 한국은 13·5규획 기간 쓰촨성과의 협력에 있어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재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농·식품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쓰촨성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해소는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성 내 2선 도시는 발전의지와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지역의 진출을 추진하기는 시기상 이른 감이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청두를 중심으로 한 청두 경제구, 국가급 신구인 텐푸신구를 타깃으로 하여 진출 및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7) 충칭시 국가자산위원회 산하의 충칭 교통운수주회사가 주도하여 설립하였으며, 국제 화물철도의 가격, 시간, 통관 등을 조정하고 노선의 운행 안정성을 확보함. 이에 따라 TCR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통관과정이 크게 개선됨. 오종혁(2013. 5. 22), 「중국 충칭·유럽 간 국제 화물철도 운행의 주요 문제점과 향후 전망」,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 4, No. 5, pp. 8~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8) 「四川启动“十三五”规划编制“三大战略”是重点」(2014. 7. 17), 『中国经济网』.

49) 「十三五开局年 四川工业亮出“六大工程”引关注」(2016. 1. 12), 『人民网』.

50) 「十三五开局年 四川工业亮出“六大工程”引关注」(2016. 1. 12), 『人民网』.

- 쓰촨성은 서부지역의 핵심 소비재시장으로서 유통·소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한국 브랜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이므로 화장품·패션, 의류·한식 패스트푸드·백색가전 및 생활용품 등에서 수출 및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sup>51)</sup>
- 또한 쓰촨성은 농업 및 식품가공업 분야가 지역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관련 로컬기업과의 협력 및 현지 엑스포 참여 등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쓰촨성은 2015년 GRDP에서 1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12.2%에 달해 충칭(7.3%)이나 산시(8.8%)에 비해 높음.<sup>52)</sup>
- 영국의 주류전문업체인 디아지오(Diageo)는 2013년 쓰촨성의 유명 백주(白酒)제조업체인 수이징팡(水井坊)을 인수했고, 그리스의 라피나(Rafina)는 2015년 쓰촨성과 1억 4천만 위안을 공동출자해 다저우시에 올리브 무역 및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sup>53)</sup>
- 따라서 쓰촨성 정부가 주최하는 농업박람회인 쓰촨성 농업 엑스포·칭두 국제도시 농업 엑스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고급 농산물 및 친환경 식품, 경쟁력 있는 농업 기술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라. 산시성

- 산시성의 13·5규획 기간 경제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학 기술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산시성은 중국에서 광물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됨. 네이멍구, 산시(山西), 헤이룽장 등 자원의존형 지역이 최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산시성은 12·5 기간에 11.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음.
-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1960년대 기술자원을 내륙에 위치한 산시성으로 이전한 정부시책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음.
- 비(非) 에너지산업이 전체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고 성장률 또한 에너지산업보다 13.4%p 높음.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시성은 13·5 계획기간에 신산업 육성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병행할 계획임.
-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통신·신소재 등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
- 또한 자원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규모 영세기업 및 광구에 대한 통폐합, 좀비기업 퇴출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일례로 최근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중앙정부가 산시성 정부에게 석탄산업에 부과하는 자원세(resource tax rates)를 2~10%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으며, 산시성은 타 지역(2%)보다 높은 6%를 부과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의지를 보인 바 있음.<sup>54)</sup>
- 산시성은 시안을 중심으로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서부지역에서 R&D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해당함.
- 시안에는 1천 개의 연구기관과 110만 명의 기술자가 거주<sup>55)</sup>

51) KOTRA(2015), 『중국 지방 성·시별 진출정보』, p. 190.

52) CEIC Database(검색일: 2016. 3. 3).

53) EIU(2015), China Access Sichuan, p. 8. (December)

54) EIU(2015), China Access Shaanxi, p. 7. (December)

55) EIU(2015), China Access Shaanxi, p. 2. (December)

- 특히 항공우주, 군사와 관련한 R&D 능력이 우수하므로 13·5규획에서 강조하는 군·민 융합이 실현되어 군수 분야의 R&D 역량이 민간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서부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을 이끄는 혁신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음.<sup>56)</sup>
- 지금까지 산시성의 과학기술력은 국방 위주로 실제로 산업화 되지 못한 기술이 많았으나, 13·5규획 기간에는 국방과학기술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고, 혁신개혁신험구로 지정된 시안시를 중심으로 혁신기반을 강화하여 경기 문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시진핑 주석이 2015년 산시성 방문 당시 강조한 추격과 추월의 본질이 결국 과학기술과 우수인력이며, 이와 관련한 자원 배분에 있어서 13·5규획을 이끌어갈 시진핑 주석이 산시성 출신이라는 점도 정책 추진 및 지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3·5 기간에도 한국과 산시성 간 교류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산시성 주력산업인 전자산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 발굴 및 기업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시성 간 경제무역협력 MOU 체결에 따라 양자간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시안에 한국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개소하였고, 치과, 피부과 등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경기, 전남, 경북 등 지자체간 교류 협력이 확대됨. 또한 산시성 셴양(咸陽)에 한국중소기업공업원이 설립되는 등 한국 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전자산업 분야에 있어 양자간 협력 연구 추진과 더불어 산시성이 취약한 분야인 과학기술의 산업화 관련 협력사업 발굴도 필요함.
- 산시성은 13·5 기간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에너지 사용량 감소, 수자원·토지자원 사용 조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중 FTA 타결에 따라 환경 분야의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해져 배기가스, 오폐수 처리 분야에 대한 진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환경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 확대를 통한 유망사업 발굴이 필요함.
- 향후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sup>57)</sup>

56) 국민대 은중학 교수 진화 인터뷰(2016. 3. 6) 내용.

57) 오중혁, 박현정(2014),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4-01, p. 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박천웅 이스트스프링 대표 "와해성 혁신 선도하는 기업에 투자"」 (2015. 12. 16), 『아주경제』 .  
<http://www.ajunews.com/view/20151216163206708> (검색일: 2016. 3. 9).
- 오종혁. 2013. 5. 22. 「중국 중창유럽 간 국제 화물철도 운행의 주요 문제점과 향후 전망」.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 4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8~9.
- 오종혁, 김홍원 (2015). 「중국 주요지역의 ICT 창업환경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2. p. 5;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 2015.2014中国城市创新环境评价研究报告. p. 2.
- 오종혁, 박현정(2014).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庆)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4-01. p. 46, p. 47, p. 105.
- 주중한국대사관(2013.12), 쓰촨성 소개자료.
- 「[이슈분석]글로벌 격전지된 전장... 국내 자동차 전자 생태계 급속도로 재편」. 2016. 2. 28. 전자신문.
- KOTRA(2015), 『중국 지방 성·시별 진출정보』 .

### [영문자료]

- EIU. 2015. China Access Chongqing, December.
- \_\_\_\_\_. 2011, 2013, 2015. China Access Shaanxi, December.
- \_\_\_\_\_. 2015. China Access Sichuan, December.

### [중문자료]

- 重庆市人民政府. 2011. 1. 『重庆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 「冯兴科：“一带一路”是西部大开发升级版」. 2015. 6. 25. CRI 国际在线
- 国家统计局. 2015. 11. 23. 「2014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 「国务院关于深入实施西部大开发战略情况的报告」. 2013. 10. 22. 『中国人大网』.
- 「李克强作政府工作报告:2016经济增长预期目标6.5%—7%」. 2016. 3. 5. 『中国网』.
- [http://www.china.com.cn/lianghui/news/2016-03/05/content\\_37943454.htm](http://www.china.com.cn/lianghui/news/2016-03/05/content_37943454.htm)(검색일: 2016. 3. 7).
- 「建设天府新区 再造“产业成都”」. 2014. 11. 13. 四川省人民政府.
- 「聚集重庆政府“一号提案”：着力打造西部创新中心」. 2015. 1. 26. 『人民网』.
- 「粤苏进七万亿俱乐部 供给侧改革成各省实现目标重要途径」. 2016. 1. 28. 『人民网』.
- <http://leaders.people.com.cn/n1/2016/0128/c58278-28092184.html#>(검색일: 2016. 2. 4).
- 「新常态下天府新区打造“主核” 成都新起点上发力新作为」. 2015. 3. 10. 『四川日报』.
- 陕西省人民政府. 2011. 1. 『陕西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 陕西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2. 16. 「2015年西部地区主要经济指标比较」
- 陕西省统计局. 2016. 1. 27. 「2015年1-12月核心指标」
- 西安光学精密机械研究所. 2016. 2. 2. 「西安光机所科技创新机制再次得到陕西省肯定」.
- 「为了西部创新中心的崛起——重庆市政协全会现场办理“1号提案”」. 2016. 1. 29. 中国政协网.
- 「“追赶超越”——陕西发展的全新定位」. 2015. 4. 26. 「西部网」.
- <http://news.163.com/15/0426/20/A05E3GAC00014AEE.html>(검색일: 2016. 3. 8).
- 「西部12省大手笔布局交通建设 今年总投资超6000亿」. 2015. 1. 15. 「人民网」.
- 「为了西部创新中心的崛起——重庆市政协全会现场办理“1号提案”」. 2016. 1. 29. 「中国政协网」.
- 陕西省地情网(<http://www.sxsdq.cn/sqgk/zhsj>).
- 「陕西将实施150个技改项目 坚决淘汰“僵尸企业”」. 2016. 1. 24. 「人民网」.
- 「十三五开局年 四川工业亮出“六大工程”引关注」. 2016. 1. 12. 「人民网」.
- 「四川启动“十三五”规划编制“三大战略”是重点」. 2014. 7. 17. 「中国经济网」.
- 「四川五大经济区构建2015年发展蓝图」. 2015. 9. 8. 「巴蜀在线」.
- 四川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2. 5. 「关于四川省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执行情况及2016年计划草案的报告」
- 「新常态下陕西人口发展呈现四大特点」. 2015. 5. 5. 陕西统计局.
- 姚慧琴 외. 2015. 「中国西部发展报告(2015)」, p. 326. 社会文献出版社
- 「彰显后发优势 “一带一路”促进西部大开发」. 2014. 12. 31. 「中国工业报」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1. 29. 「2015年1-12月全国利用外商直接投资情况」.
- 「中共重庆市委关于制定重庆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12. 3. 「重庆日报」.
- 「中共陕西省委关于制定陕西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12. 3. 「陕西日报」.
- 「中共四川省委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12. 3. 「四川日报」.
- 「2016年四川省人民政府工作报告」.
- 「2015年1-12月规模以上工业」. 2016. 1. 27. 陕西省统计局.
- 「2015年上半年四川区域经济分析」. 2015. 7. 29. 四川省统计局.
- 「2016青海省人民政府2016年《政府工作报告》」. 2016. 2. 14. 「人民网」
- 산시성 통계국(<http://www.shaanxitj.gov.cn>).

## [데이터베이스]

- CEIC Database(검색일: 2016. 2. 16; 2. 19; 3. 3).
- 한국무역협회(Kita.net).